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와의 관계

서지영

부천대학교, 조교수

Relationship among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i Young, Seo

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3권 제4호 2019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4, December 2019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와의 관계

서지영

부천대학교, 조교수

Relationship among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i Young, Seo

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level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n peer group caring behaviors.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81 nursing students in one university located Gyeonggi province in December 2018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mean item score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were all at a moderate level. Empathy significantly differed by gender and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significantly differed by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jor satisfaction,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were identified as factors affecting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The explanatory power of variance was 20.2%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empathy. **Conclusion** : To promote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to increase the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mpathy, Communication, Peer Group, Car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많은 간호학자들은 돌봄(caring)을 의학에서의 치유와 구별되는 간호의 본질이자 간호실무의 핵심으로써 돌봄의 이론과 본질을 기술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Watson[1]은 돌봄이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감정, 관심, 태도, 호의적 바람뿐만 아니라 돌봄의 가치에 대한 간호 지식과 간호활동 및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Morse 등[2]은 돌봄의 특성을 5가지로 개념화하였는데, 돌봄이란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trait)이자 간호의 도덕적 이상으로 정서적 특성을 가지며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 중재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돌봄 행위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고 간호사의 돌봄 능력 및 간호대상자의 돌봄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간호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환자의 돌봄 경험과 돌봄 수준 및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질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5].

이러한 돌봄은 간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6,7]. 간호관리자 또는 병원 동료 간의 돌봄-배려 행위는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8] 병원 동료들과의 만남이나 워크숍, 선배 간호사의 격려와 지지는 신규 간호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힘든 임상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9].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입학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부담감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긍지와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동료들의 돌봄과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11].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받는 선배들의 돌봄과 지지는 후배 간호대학생들의 학과적응도를 높이고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12].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동료들의 지지, 즉 동료 간 돌봄 수준을 확인하고 그러한 돌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동료 간 돌봄 행위가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훈련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간호학 교수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감 능력이란 인지·정서적 그리고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으로 환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3].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높은 공감 능력은 환자 돌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4]. 이에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전문직 자아개념[15],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지만[16], 아직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동료 간 돌봄 행위와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동료 간 돌봄 행위와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말한다[17]. 병원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의료인들과 직종 간의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하는 간호사들에게 의사소통 장애는 갈등과 스트레스의 주원인이 되지만, 기존 연구들을 통해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8,19].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감 능력 및 임상수행능력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20,21].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간호학과에서는 다양한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돌봄에 관한 연구는 간호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활발히 탐구되고 있지만, 돌봄의 주체자이자 간호 돌봄 행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동료 간 돌봄을 탐구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간호교육 과정에서 돌봄을 실습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동료 관계를 강조하거나 간호학과 학생들 간의 돌봄 행위나 돌봄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도 거의 없었다. 이에 Kim 등[22]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료 돌봄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Hughes[23,24]가 개발한 동료돌봄행위척도(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 : PGCIS)를 번역-역 번역한 후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어판 도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탐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수준과 그 관계를 파악하고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동료 돌봄 행위를 촉진시키고 돌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수준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B시에 소재하는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공수업보다 교양수업 위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1학년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4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최종 대상자는 181명이었다. 이는 G*power program 3.1.5에 근거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 크기 .15, 검정력 .90, 독립변수 9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인 141명을 충족한다.

3. 연구 도구

1) 공감 능력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25]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IRI)를 Park[2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인지적 공감은 다시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의 하위요인들도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7문항으로 총 28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

시 Cronbach's $\alpha = .79$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 의사소통 능력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Rubin 등[27]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구성 능력에 Hur[28]가 7가지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글로벌 인간관계 의사소통 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 GICC)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3)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간호대학생의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Hughes[23,24]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동료돌봄행위척도(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 : PGICIS)를 Kim 등[22]이 번역-역 번역 과정을 통해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한 한국어판 동료돌봄행위척도(PGCIS-K) 도구로 측정하였다. 개발 당시에는 2개의 하부영역인 돌봄 행위(caring behaviors)와 도움제공(giving assistance)으로 구성되었으나 Kim 등[22]의 연구에서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나 다른 사람의 감정 및 태도에 대한 민감성 및 과제 수행 시 동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모델링과 도움(modeling & assistance)'으로, 대상자들이 동료의 특정 요구나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들을 도와주는 행위 즉, 동료들의 기대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의사소통과 공유(communication & sharing)'로 명명하였으며 이 2개의 하위영역은 각각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문항에서 임상실습과 관련된 의사소통과 공유 영역의 3문항을 제외하고 총 9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B시 소재하는 한 대학의 간호학과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차이는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으로 파악하였다.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 181명 중 남학생은 24명(13.3%), 여학생은 157명(86.7%)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70명(38.7%), 3학년이 62명(34.3%), 4학년이 49명(27.1%)이었고 대상자 중 95명(52.5%)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6명(58.6%)이었다.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취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4명(40.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적성과 흥미’로 44명(24.3%)이 응답하였고 ‘봉사와 헌신’은 8명(4.4%)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 중 84명(46.4%)은 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가족이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55명(85.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4(13.3)
	Female	157(86.7)
School year	2nd	70(38.7)
	3rd	62(34.3)
	4th	49(27.1)
Religion	Don't have	95(52.5)
	Have	86(47.5)
Major satisfaction	High	106(58.6)
	Moderate	56(30.9)
	Low	19(10.5)
Admission motive	Aptitude and Interest	44(24.3)
	Grade	16(8.8)
	Job	74(40.9)
	Recommendation	39(21.5)
	Service and Dedication	8(4.4)
Experience of admission	Yes	84(46.4)
	No	97(53.6)
Experience of family's admission	Yes	155(85.6)
	No	26(14.4)

2. 대상자의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 능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0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은 평균 3.70점, 정서적 공감이 평균 3.50점이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는 6점 만점에 평균 4.43점, 총점은 54점 만점에 평균 39.8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하부영역인 의사소통과 공유가 6점 만점에 평균 4.46점으로 모델링과 도움의 평균 4.42점보다 높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능력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공감 능력 점수는 남학생이 평균 3.39점, 여학생은 평균 3.63점으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t=-2.81, p=.006$). 대상자의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에 따라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Scheffé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공감 능력 점수가 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50, p=.012$). 또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대상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8.18, p<.001$),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점수는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7.45, p=.001$).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라 공감 능력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t=3.16, p=.015$)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Level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N*=181)

Variables	Mean±SD	Possible range	Mean±SD	Possible range
Empathy	3.60±0.41		100.81±11.41	28~140
Cognitive empathy	3.70±0.52	1~5	51.81±7.04	14~70
Affective empathy	3.50±0.45		49.00±6.36	14~70
Communication skill	3.78±0.48	1~5	56.65±7.15	15~75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4.43±0.83		39.89±7.50	9~54
Modeling and Assistance	4.42±0.92	1~6	13.37±2.37	3~18
Communication and Sharing	4.46±0.79		26.52±0.79	6~36

Table 3. Difference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by the characteristics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athy		Communication skill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Mean±SD	t/F (<i>p</i>)	Mean±SD	t/F (<i>p</i>)	Mean±SD	t/F (<i>p</i>)
Gender	Male	3.39±0.46	-2.81	3.78±0.57	0.08	4.23±1.03	-1.27
	Female	3.63±0.39	(.006)**	3.78±0.46	(.940)	4.46±0.80	(.206)
School year	2nd	3.66±0.46		3.78±0.47		4.39±0.82	
	3rd	3.60±0.38	1.72 (.182)	3.74±0.51	0.36 (.701)	4.49±0.81	0.24 (.789)
	4th	3.52±0.35		3.82±0.45		4.43±0.86	
Religion	Don't have	3.58±0.43	-0.65	3.76±0.49	-.36	4.45±0.84	0.27
	Have	3.62±0.39	(.514)	3.79±0.46	(.718)	4.41±0.83	(.790)
Major satisfaction	High ^a	3.67±0.38	4.50	3.89±0.46	8.18	4.60±0.82	7.45
	Moderate ^b	3.54±0.42	(.012)*	3.61±0.45	(<.001)**	4.31±0.63	(.001)**
	Low ^c	3.47±0.44	a>b	3.61±0.51	a>b,c	3.87±1.12	a>c
Admission motive	Aptitude and Interest	3.70±0.39		3.83±0.41		4.58±0.71	
	Grade	3.57±0.40		3.85±0.53		4.67±0.77	
	Job	3.54±0.38	3.16 (.015) [†]	3.75±0.45	0.39 (.818)	4.26±0.86	1.90 (.113)
	Recommendation	3.55±0.44		3.73±0.52		4.42±0.92	
	Service and Dedication	3.98±0.42		3.83±0.73		4.78±0.64	
Experience of admission	Yes	3.61±0.40	0.23	3.82±0.51	1.23	4.39±0.96	-0.57
	No	3.59±0.42	(.817)	3.74±0.44	(.222)	4.47±0.71	(.570)
Experience of family's admission	Yes	3.60±0.41	0.04	3.79±0.49	0.68	4.45±0.84	0.74
	No	3.60±0.39	(.969)	3.72±0.37	(.501)	4.32±0.81	(.462)

* *p*<.05, ** *p*<0.01, [†] 사후검정 시 군간 유의한 차이 없음

4. 대상자의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와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는 공감

능력($r=.373, p<.001$), 의사소통 능력($r=.31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감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96, p<.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N=181$)

Variables	Empathy	Communication skill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r(p)$		
Empathy	1		
Communication Skill	.396(<.001)	1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373(<.001)	.319(<.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N=181$)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4.95	.15		33.74	<.001	2.39	.56		4.30	<.001	1.67	.64		2.62	.010
Major satisfaction	-.34	.09	-.28	-3.83	<.001	-.25	.09	-.21	-2.97	.003	-.21	.09	-.18	-2.49	.014
Empathy						.67	.14	.33	4.75	<.001	.55	.15	.27	3.68	<.001
Communication skill											.29	.13	.17	2.21	.029
	$R^2=.076$, Adjusted $R^2=.071$ $F=14.67$, $p<.001$					$R^2=.180$, Adjusted $R^2=.170$ $F=19.48$, $p<.001$					$R^2=.202$, Adjusted $R^2=.188$ $F=14.89$, $p<.001$				

5. 대상자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공감 능력, 3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08~.916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 VIF)는 1.091~1.238로 모두 10 미만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2.015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 1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4.67$, $p<.001$)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7.6% 설명하였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28$, $p<.001$). 공감 능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 2의 설명력은 18.0%로 모델 1에 비해 10.4%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모델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9.48$, $p<.001$). 모델 2의 변수들인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beta=-.21$, $p=.003$), 공감 능력($\beta=.33$, $p<.001$)은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이었다. 의사소통 능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 3의 설명력은 모델 2에 비해 2.2%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20.2%이었으며 모델 적합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89$, $p<.001$).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공감 능력($\beta=.27$, $p<.001$),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beta=-.18$, $p=.014$), 의사소통 능력($\beta=.17$, $p=.02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수

준을 파악하고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0점으로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e[16]의 3.69점, Kim과 Lee[20]의 3.58점, Cho[29]의 3.73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정도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17]의 3.81점, Cho[29]의 3.76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는 6점 만점에 평균 4.42점, 총점은 54점 만점에 평균 39.89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총 12문항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한 Kim 등[22]의 연구에서는 6점 만점에 평균 3.98점, 72점 만점에 평균 47.8점이었으며 Whang[11]의 연구에서는 72점 만점에 평균 50.5점으로 나타났다. Whang[11]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구에서 Kim 등[22]의 연구결과보다 동료 간 돌봄 행위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의 본질인 돌봄에 대해 인식하고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실제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 결과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22]은 한국어판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 측정도구, 즉 PGCIS-K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원 도구의 내용과 형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동료 간 돌봄 행위 수준이나 그 학년이 임상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돌봄 행위가 향상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과 임상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동료 간 돌봄 행위를 묻는 3문항은 임상실습 전인 2학년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고 총 9문항으로 수정된 도구를

이용하여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총점은 54점 만점에 평균 39.89점이었고 이를 72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3.19점이다. 물론 단순히 도구 문항수에 따른 환산 점수로 비교하여 판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두 연구[11, 22]에서 72점 만점에 평균 50.5점, 47.8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료 간 돌봄 행위 실천이 향상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학년이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동료 간 돌봄 행위와의 차이와 변화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공감 능력은 성별에 따라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공감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 -2.81, p = .006$). 이는 Kim과 Lee[20]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최근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특히 남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높은 대상자의 공감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 = 4.50, p = .012$)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20]의 연구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전공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대상자보다는 높은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고($F = 8.18, p < .001$) 전공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보다 높은 대상자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다($F = 7.45, p = .001$). 즉, 다시 말해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들의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주목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탐색 및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는 공감 능력($r = .373, p < .001$), 의사소통 능력($r = .319, p < .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r=.396, p<.001$) 이는 기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Chung[21], Cho[2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동료 간 돌봄 행위 향상을 위해서는 공감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20.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 능력이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won[4]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노인돌봄 태도와 노인간호실천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은 간호중재의 기본 전제로써 간호사가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며 환자의 고통과 질병 과정을 진심으로 자신의 내면의 일처럼 인지하여 그 환자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한 지지적인 돌봄을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문가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Jeong과 Kim[30]의 연구에서 주 2회, 3주간 총 6회기의 15시간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간호대학생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집단보다 대인관계능력과 돌봄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공감 능력이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돌봄 분위기를 형성하고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실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 향상에 보다 초점을 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영향 요인으로 공감 능력 다음으로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

여 본다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가로서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감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동료 간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교육과정동안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돌봄의 본질과 가치를 배워나가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로 탐색하여 전공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학과 내 돌봄 분위기를 형성하고 돌봄을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돌봄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지각된 동료 돌봄 행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동료 간 돌봄 행위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공감 능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공감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동료 간 돌봄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학과 교육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가로 양성될 간호대학생의 돌봄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에 관한 연구보다 현재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동료 간 돌봄 행위의 경험과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료 간 돌봄 행위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초기 연구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동료 간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더 탐색하고 간호대학생의 돌봄 행위를 증진시키고 돌봄의 본질과 의미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 정도 또는 학년에 따른 동료 간 돌봄 행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동료 간 돌봄과 그로 인한 자신과 동료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회복에 대한 경험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Watson J.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Sudbury, Massachusett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1999.
2. Morse JM, Solberg SM, Neander WL, Bottorff JL, Johnson JL. Concepts of caring and caring as a concep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90;13(1): 1-14.
3. Seo JY, Lee M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caring experience of nurses working in chemotherapy ward in Korea. *Asian Oncology Nursing*. 2017;17(1):55-56.
4. Kim YK, Kwon SH.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7;19(3):203-213.
5. Sagong H, Lee GE. Perso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6;27(4):309-318.
6. Hughes L. Peer group interactions and the student-perceived climate for car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3;32(2):78-83.
7. Longo J. Acts of caring: Nurses caring for nurses. *Holistic Nursing Practice*. 2011;25(1):8-16.
8. Kong MY, Kim JH. Influence of nurse manager an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nurses on intention to re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2):191-200.
9. Kim HR, Kwon I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ncology adaptation experiences of new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2014;14(2):127-138.
10. Park DH, Kim HJ.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1):353-361.
11. Whang SA.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ego-resilience,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16):807-823.
12. Yoon YM, Suk MH. Effect of a mentoring program to improve adaptation to department and career ident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2012;12(1):185-203.
13. Brunero S, Lamont S, Coates M.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2010; 17(1):65-74.
14. Ahn YM, Jang KS, Park HY. Effects of compass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n caring behaviors of clinical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8;12(4):17-30.
15. Hwang HM, Kim JO. Effect of clinical nurses empathetic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etic effect, communication skill,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17;12(2):147-166.
16. Chea MO.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5):95-103.
17. Yang YK.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8;25(2):99-108.

18. Park JH, Chung SK.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0): 236-244.
19. Lee AK, Yeo JY, Jung SW, Byun SS. Relation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job-stress and job-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12):299-308.
20. Kim HJ, Lee MS.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 237-245.
21. Park JH, Chung SK.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 7698-7707.
22. Kim JH, Kong MH, Oh Y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Korean ver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6;46(3):431-442.
23. Hughes, L. Peer group interactions and the student-perceived climate for car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3;32(2):78-83.
24. Hughes, L. C.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caring peer group interaction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8;37(5):202-207.
25.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980;10:85-103.
26. Park SH. Empathy and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sa. 1994.
27. Rubin R, Martin M, Bruning S, Power 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October; Atlanta. 1991.
28.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29. Cho YH.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6;25(4):294-302.
30. Jeong JO, Kim S(2019).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3):344-356.